

## "지금 삼성에 필요한 것은 창조성"

뉴스 입력 : 2010.02.10 16:22 / 수정 : 2010.02.11 11:55



▲ 식장으로 들어서는 이건희 전 회장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콘셉트를 (삼성이) 창조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호암 이병철 탄생 100주년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기자와 만난 **아 나기마치 이사오 게이오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이사오 교수는 "그간 삼성전자는 후발기업으로서 강점이 있었다. 선도기업이라는 교과서가 있었다"며 "이제는 반도체 등 여러 분야에서 삼성이 교과서가 돼야 할 시기가 왔고, 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호암 이병철 탄생 100주년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삼성의 미래와 관련해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이나오 교수뿐만 아니라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타룬 칸나 하버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만나 "삼성이 한

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량인데,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려면 삼성의 도움 없이 못 할 것"이라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더욱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역시 "1등 기업은 이윤만 창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책임도 완수해야 하며, 투명경영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삼성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인들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작가 홍하상씨는 '신성장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작가는 이어 "70년 역사의 삼성은 아직 400년 이상 된 일본의 대기업 수준으로 단단하진 않다"며 "신성장동력이 아주 중요한데, 현재의 태양전지나 2차전지 등 세간에 가시적으로 알려진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후계구도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이와관련 한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이 영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후계자 문제"라며 "이병철 선대회장 당시처럼 철저하게 이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암 탄생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삼성이 또다른 100년을 맞아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들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프린트](#)  [닫기](#)

Copyright (c)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mailto: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